



현장실습 보고서(주간)

(슈어소프트테크 CS-Static부서)

과목명	현장실습(단기) (JOB1001)	
근무지	슈어소프트테크 CS-Static부서	
근무일자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2월 26일	
소속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학번	이름	
2019009261	최가온(CHOI GA ON)	

I. 주간 보고서

업무 요약	정적 분석 규칙 예제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에 추가 / UI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업무 요약 (영문)	CS_STATIC: collecting examples of static analysis rules and its application for systems
1주차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Line, Slack 등을 가입하여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직원 계정을 만드는 등 기본적인 회사 업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를 완료하였다. 두 달 간의 인턴 기간에 대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코로나 관계로 인해 비대면을 통한 부서 미팅 시간을 가졌다. 또한, CS-Static 부서 과장님과 함께 추후의 업무와 개인적인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주차	CodeScroll STATIC 내에서 MISRA C++ 2008 코드 규칙들을 하나씩 공부해나갔다. 이는 1학년 2학기에 수강한 창의적소프트웨어설계 과목의 연장선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각각의 코드 규칙을 학습한 이후, 오타자 / Bad Case+Good Case 등을 검토해나갔다. 또한 매일 아침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고 1월 7일에는 OKR 회의에 참석하며 STATIC 부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리뷰하는 모습을 관찰해볼 수 있었다. STATIC 부서 팀장님과 신입 직원 면담을 진행하였다.
3주차	OKR 회의(2차)에 Zoom을 이용하여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이전의 회의와는 다르게 부서의 모든 인원과 대전 지점의 직원들까지도 모두 참여한 규모의 회의였다. 물론 기술적인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기 보다는, 회사의 비전이나 회의 방식 등을 눈여겨보며 참여하였다. 이를 보며, 발표 능력과 설득력이 회사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주까지 MISRA C++ 2008 문서를 어느 정도 작업을 끝내고, MISRA C 2012 document를 보며 검토를 시작하였다. 수정사항들은 사내 공유 문서에 저장해 두었다.
4주차	이번주는 코로나19 관련 사내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MISRA C 2012의 모든 코딩 규칙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

	<p>였다. 코드 규칙들에 대한 수정사항을 업로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안내받았으며, 추후 필자가 작성한 코드 규칙 수정사항들에 대해(Good Case/Bad Case, 오타자 교정, 개념 설명 등)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리뷰하고 Confirm받는 시간을 갖게될 예정이다.</p>
5주차	<p>화상채팅을 통해 지난 약 3주동안 검토한 MISRA CPP 2008 매뉴얼과 MISRA C 2012 매뉴얼의 수정 사항을 부서 내의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원문에서 번역체의 문체로 옮겨진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규칙을 제대로 설명하는 Good Case/Bad Case를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의 개선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주부터는 Git을 이용하여 개발 환경을 좀 더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실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투입됨으로서 매뉴얼 검토 및 개선이라는 본인의 업무가 좀 더 뚜렷해졌다.</p>
6주차	<p>현대오토론, 한화, 국방 등 기관들에서 문의한 규칙들을 중심으로 문의 내용, 레퍼런스, 개발자 조언 등을 토대로 매뉴얼을 개선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세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처리 과정 등을 알아보았고 실제 회사 시스템 내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해보았다. 실질적으로 효력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울 것들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주일에 한번 매뉴얼 수정 검토 회의에 참석하고, 추후 Modern CPP에 대한 세미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p>
7주차	<p>자사 개발 소프트웨어인 CodeScroll의 사용을 위해 설치과정부터 실제 사용방법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규칙별로 내가 만든 Good/Bad Case가 실제 규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 내가 학기 중에 수행했던 과제들의 코드도 돌려보며 적절하지 않은 코딩 스타일(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모던 C++ 세미나에 참석하여 constexpr와 consteval, likely와 unlikely, module, coroutine 등 자사제품에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p>
8주차	<p>자사 개발 도구인 Fix Reference를 이용하여 각 규칙별로</p>

	<p>Good/Bad 케이스를 직접 만드는 역할을 했다. 지난 주차까지는 주로 매뉴얼의 설명 개선에 힘썼다면, 이번에는 예시 코드를 개선하고 추가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내가 만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에 팀장님을 포함한 약 5명의 사람끼리 모여 리뷰 회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코드 규칙에 대해서는 Overload Resolution, Function Candidate 등의 개념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업무를 진행해나갔다.</p>
9주차	<p>현장실습 진행의 마지막 주차다. Fix reference에 올려둔 good/bad 케이스에 대해 모두 리뷰회의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그동안 남아있던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의시간을 마련하여 리뷰하였다. CS-Static 부서 내에서 인턴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원동기와 입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두 달간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각 주차별 배운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 감사의 말을 남겼다. 무사히 현장실습을 수료하게 해주신 부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업무의 모든 것들을 마쳤다.</p>